

2024-10-14 (2024-40호)

10월 14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달러·위안 사이 눈치보기..박스권 유지 가능성

서울, 10월1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와 중국 부양책 여파 등에 주목하면서도 방향성보다는 레인지 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30-1365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1월 50bp 금리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채권금리와 달러가 위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달러/원은 1350원선으로 오른 뒤 상·하방이 갇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강달러와 강위안의 동반 강세가 원화에 엇갈린 영향을 주는 가운데 이번 주도 원화는 이들 통화 사이에서 눈치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이 증시와 위안을 떠받치는 양상이 지속될지가 관건인데 만약 부양책 약발이 떨어져 위안 되돌림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금주 중국은 3분기 GDP를 포함해 수출입, 주택가격 및 소매 판매 등 주요 지표가 발표된다. 다만, 이에 따른 결과보다는 중국 부양책에 대한 해석이 시장심리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도 9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해석과 금리 전망에 따라 금리와 달러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도 예정돼있다. 로이터 사전조사에 따르면 예금금리 25bp 인하 전망이 압도적이다.

ECB금리 결정과 향후 정책 스탠스를 감안한 유로 반응과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 움직임도 변수다.

달러/원 환율이 1350원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역외 숏커버가 일단락된 이후 수급 방향성은 제한적이다.

금주 환율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와 위안 등 대외 재료를 살피며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을 열어둬야할 듯하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이슈

다음 주에는 중국의 GDP 수치, 미국 소매판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 실적 발표가 진행된다.

◎ 中 성장 목표 달성?

18일 발표되는 중국의 3분기 성장률 수치는 각종 경제지표 발표로 가득찬 한 주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입안자들은 연간 성장률 목표인 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자신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분기의 저조한 수치와 3분기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대담한 발언이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공격적인 부양책을 발표한 점을 생각하면 투자자들이 비관적인 수치를 보아넘길 수도 있다. 발표 이후 들뜬 분위기는 일부 사라졌지만 재정 지원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이 발표되면 또 한번의 시장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GDP 데이터와 함께 무역, 주택 가격, 소매 판매도 발표한다.

◎ ECB의 금리 인하 경로

ECB는 목요일 또다시 금리 25bp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꺼려했던 움직임이며 트레이더들은 한 달 전 회의 당시에는 이달 인하 가능성을 25% 미만으로 보았었다.

그러나 9월 유로존 경제 활동이 예기치 않게 위축되면서 ECB가 금리를 너무 느리게 인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인플레이션은 급격히 둔화되어 9월 중 ECB의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졌고,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성장 위험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인하로 연이은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금리 결정권자들은 아직은 연속 금리 인하에 뛰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쩌면 ECB가 새로운 예측을 발표하는 12월에 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매파인 이사벨 슈나벨 이사 조차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오랜 경고를 철회한 바 있다.

◎ 美 소매판매와 은행 실적

시장은 목요일 미국 소비자 상태에 대한 추가 지표를 확인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소매판매 데이터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것으로 드러난 경제에 대한 추가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이 향후 몇 달 동안 금리를 얼마나 더 인하해야 할지에 대한 베팅이 재조정되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소매판매가 호조를 보이면 미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가 돼 이러한 추세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어닝 시즌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화요일 발표되는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의 실적에서도 소비자들의 상황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유럽 기업 실적

유럽 최대 기업 중 두 곳인 LVMH와 ASML을 시작으로 다음 주 유럽 대륙의 어닝 시즌도 시작된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 수익은 2023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넘어야 할 장벽이 높음을 의미하지만,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수익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유럽 기업들이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스톡스6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2% 미만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에서 보았듯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 신고점을 찍을 수 있다.

⊙ 英 예산안

10월30일 새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안을 앞두고 국제 채권 시장의 영국 대출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수요일 발표되는 9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긴장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공공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의 차입 규정 완화 우려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10년물 영국 국채 금리는 7월 초 이후 최고치 부근을 가리키고 있다.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한 불안감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

8월 영국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체적으로 2.2%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5.6%로 상승세가 가속화되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소매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레이더들은 11월 영란은행의 두 번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와 휴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美 경제 평가..주요 기업실적·소매판매 지표 관심

뉴욕, 10월14일 (로이터) -

이번 주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과 소매 판매 데이터를 통해 이달 증시를 견인한 경제 회복력을 확인해볼 예정이다.

기업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증시는 상승세다. 벤치마크 지수인 S&P500지수는 5주 연속 주간 상승 속 연간 21% 이상 오르며 사상 최고치 근처에 머물러있다.

주가 강세를 이끈 것은 여름 내내 시장을 뒤흔들었던 경기 둔화 우려를 불식시킨 일련의 고무적인 경제 지표들이다. 그 중 이달 초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최근의 신호다.

비 라일리 웰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아트 호건은 "대부분의 경제 데이터 흐름은 긍정적이었다"며 "이

번 주에 발표되는 일부 소비자 대상 기업 실적에서도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넷플릭스, 유나이티드 항공, 프록터 앤 갬블과 여러 주요 은행들의 실적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소매판매 데이터는 10월1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JP모간 체이스와 웰스파코 주가는 두 은행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급등했다.

장기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침체를 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고해졌다. 예를 들어, 골드만 삭스는 고용지표 따라 향후 12개월 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5%p 낮춘 15%로 전망했다.

강력한 데이터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자리 외에도 소비자 물가와 서비스 부문에 대한 보고서는 8월과 9월 실망스러운 고용 보고서로 촉발된 경제의 급속한 약화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지표가 예상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측정하는 씨티그룹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5월 초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이번 달 플러스 전환됐다.

US economic data beating expectations

Citi's economic surprise index, which measures how economic data stacks up versus expectations, turned positive this month



Source: LSEG

하지만 찰스 슈왑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케빈 고든은 최근 몇 달 동안 금융 서비스 및 테크 기업의 해고, 남동부의 연이은 허리케인, 항만 노동자 파업 등으로 소비 지출 환경이 "더 어두워졌다"며 데이터와 기업 보고서 명확성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화요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씨티그룹을 포함한 다른 은행들의 추가 실적을 통해 더 많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 있는 체이스 인베스트먼트 카운슬 대표인 피터 투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결과는 더 많은 최고급 지출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덜 부유한 소비자들이 지난 몇년간 가격 상승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밀워키에 있는 애넥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라이언 제이콥슨은 저소득층 소비자가 지출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넥플릭스 실적,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의 고객 추가 또는 감소 여부와 그 속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과거 평균을 훨씬 웃도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기별 보고서에서 수익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야 한다. 이미 보고서를 제출한 적은 수의 기업 중 79%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요일 LSEG IBES 데이터는 밝혔다.

앞으로 2주 동안 150개 이상의 S&P 500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금요일 메모에서 3분기 실적을 통해 대형주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으므로 신용 카드 부채 및 기업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로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10월14일 (월)

⊙ 한국은행: 국정감사

10월15일 (화)

- ⊙ 한국은행: 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06:00)
- ⊙ 한국은행: 2024년 제18차(9.26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ADB 총재 후보자 면담 (16:00)

10월16일 (수)

- ⊙ 통계청: 2024년 9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08:00)
- ⊙ 한국은행: 2024년 8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10월17일 (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08:10)
- ⊙ 금융감독원: 원장 국정감사 (10: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관계부처 합동 대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12:20)
- ⊙ 한국은행: 총재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17~19일, 중국)

10월18일 (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2024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기획재정부: 제2차 한중(韓中) 경제협력교류회 및 제3차 한중(韓中)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 개최 (11:00)
-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WBG 합동 연차총회」 참석 (12:00)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0월14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10월 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9월	6.4%	6.3%
10월 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9월	1,865.0B	900.0B
10월 10-17일		중국	FDI (YTD)	9월		-31.50%
10월14일		중국	수출 YY	9월	6.0%	8.7%
10월14일		중국	수입 YY	9월	0.9%	0.5%
10월15일	18:00	유로존	산업생산 MM	8월	1.8%	-0.3%
10월15일	21: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10월	3.60	11.50
10월16일	08:50	일본	기계류 주문 MM	8월	-0.1%	-0.1%
10월16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0월 11일 주간		277.5
10월16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9월	-0.3%	-0.3%
10월16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9월	-0.4%	-0.7%
10월17일	08:50	일본	수출 YY	9월	0.5%	5.6%
10월17일	08:50	일본	수입 YY	9월	3.2%	2.3%
10월17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확정치 MM	9월	-0.1%	0.1%
10월17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7 일 주 간	255k	258k

10월17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9월	0.3%	0.1%
10월17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9월	-0.1%	0.8%
10월17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10월	42	41
10월18일	08:30	일본	CPI MM NSA	9월		0.5%
10월18일	10:30	중국	주택가격 MM	9월		-0.7%
10월18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9월	3.3%	3.4%
10월18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9월	4.6%	4.5%
10월18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9월	2.4%	2.1%
10월18일	11:00	중국	GDP YY	3분기	4.5%	4.7%
10월18일	17:00	유로존	경상수지 NSA,EUR	8월		48.00B
10월18일	21:30	미국	건축허가건수	9월	1,450M	1,470M
10월18일	21:30	미국	주택착공건수	9월	1,349M	1,356M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0월14일 (월)

- ⊙ 싱가포르 중앙은행 정책 결정 발표 (오전 9시)
- ⊙ 닐 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컨퍼런스 참석 (오후 10시)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스탠포드대 주최 컨퍼런스서 연설 (15일 오전 4시)
- ⊙ 닐 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토르콰토 디 텔라 대학교 경제학과 주최 행사에서 강연 (15일 오전 6시)
- ⊙ 휴장국가: 일본, 캐나다, 태국, 미국(주식 개장, 채권 휴장)

10월15일 (화)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뉴욕대 스티븐경영대 주최 행사에서 연설 (16일 오전 0시30분)
- ⊙ 아드리야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주최 웹캐스트 컨퍼런스 참석 (16일 오전 2시5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개더링스팟 주최 행사 참석 (16일 오전 8시)

10월16일 (수)

- ⊙ 아다치 세이지 일본은행 정책위원 연설 및 기자회견

10월17일 (목)

- ⊙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및 금리 발표 (오후 9시15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오후 9시45분)
-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앞두고 연설 (오후 11시)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경제분야 진로탐색 컨퍼런스 환영사 (18일 오전 0시)

10월18일 (금)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미시시피 경제교육위원회 행사서 고등학생 대상 강연 (오후 10시30분)
- ⊙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제 19회 연례 빈 거시경제 워크샵에서 연설 (19일 오전 1시10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미시시피 경제교육위원회 포럼 오찬에서 연설 (19일 오전 1시30분)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미니애폴리스 연은 주최 컨퍼런스 정책 패널 토론 주제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종합)-RFI 등록기관 40개로 확대..JP모간 싱가포르 추가

서울, 10월11일 (로이터) -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채권 투자와 외환거래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11일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기관이 한 곳 더 늘어 총 40개로 확대됐다.

이번에 새로 등록한 기관은 JP모간체이스 싱가포르지점으로 이 곳은 아시아지역 채권거래를 총괄지점으로 알려져있다.

한 시장관계자는 "WGBI와 연결해본다면 채권투자와 함께 외환거래도 함께 많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책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WGBI 편입 결과에 대해 "구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밝히며 변동 환율제를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전문가반응)-中 증시, 2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 후 랠리 소강

10월8일 (로이터)-

뜨거운 기대 속에 8일 진행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브리핑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하지 못하자 중국 증시의 초반 랠리가 힘을 잃었다.

일주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중국 증시는 이날 2년 여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우량주인 CSI300지수.CSI300는 장 초반 10% 상승하며 2022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하이종합지수.SSEC는 9.7% 올라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산제 NDRC 주임의 발표가 진행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다소 꺾였다. 오후 2시21분 CSI300지수는 4%대, 상하이종합지수는 3%대 각각 상승 중이다. (* 관련기사 (Full Story)(Full Story))
황금연휴에 들어가기 전, 중국은 팬데믹 이후 가장 공격적인 부양책을 발표했고 중국 증시는 이미 급등한 바 있다.

다음은 중국 증시 움직임과 관련한 해외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 손 립, 메이뱅크 FX 전략가

"NDRC는 새로운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아 크게 실망스러웠다. NDRC 실망으로 오늘 랠리는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자산의 펀더멘털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추후 추가 대책이 발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켄 청, 미즈호 FX 전략가

"주식시장 폭등세 속에서도 역내외 위안 거래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NDRC 기자회견 실망으로 인한 외환 영향은 크게 완화됐다."

"그러나 중국 시장의 낙관론 냉각과 최근 달러 랠리로 인해 위안에 대한 리스크는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 중국인민은행의 대규모 완화와 정치국 회의에서의 긍정적인 신호가 중국 성장에 대한 약세 전망을 완화시켜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이후 미-중 금리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했다."

"감동스럽지 못한 부양책은 강제 심리를 빠르게 약화시키고,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가 위안 환율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션 테오, 삭소 세일즈 트레이더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 줄을 서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주식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장 움직임은 흥미로울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CSI300지수는 지난 6일 동안 약 38% 급등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시장의 수익률은 평균 10% 정도인데, 거의 4배를 넘어선 것이다."

"홍콩과 중국 증시의 수익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현재 홍콩은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자금을 홍콩에서 정부 부양책이 더 직접적인 중국 시장으로 재배치했기 때문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실행한다면 중국 시장이 다른 국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

◆ 룽 렌 고,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모두가 재정 부양책의 규모를 명확히 알기를 바라며 숨을 죽이고 NDRC 회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조 위안에 가까울지 10조 위안에 가까울지가 중요하다."

"리스크 랠리를 지속하려면 재정 부양책이 10조 위안에 가까워야 한다."

"연휴 기간 동안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것은 시장이 달러/위안(CNH) 숏 포지션으로 연휴에 들어갔고 연준에 대한 가격 재조정에 따른 달러 강세로 이러한 약세 포지션이 일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재정부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오늘 회의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부양책은 중앙정부가 감당할 적자 규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매트 심슨, 씨티 인덱스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

"매우 강한 랠리의 고점에서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기만 해도 목이 아플 정도의 랠리 지점에 도달하면 후퇴가 이미 늦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황금 연휴 동안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인 후 차익실현을 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고, 이는 다른 사람들이 당장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뛰어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중국 시장에 더 깊은 하락은 아니더라도 고점 부근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 룩 카넬, ING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서치 책임자

"최근 소비 바우처, 추가 인프라 지출 투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며..최근 언급된 실물 부양책에 대한 추가 기대감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연휴 직전의 긍정적인 부양 메시지가 오늘 기자 회견에서 몇 가지 추가 될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홍콩은 개장한지 좀 더 오래됐기에, 아마도 글로벌 주식 시장 (흐름)과 더 일치할 것이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